

디지털 물류도시로 도약

익산시, 국토부 지원사업 선정... 농가소득증대 · 빠른 농산물 배송 등 1석3조 효과

익산시가 국토부의 중소도시 스마트 시티사업에 이어 디지털 물류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교통·물류 첨단 인프라가 접목된 스마트도시로 도약한다.

시는 최근 국토부의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은 기존 도시가 안고 있는 교통 혼잡, 환경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물류 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물류 기술을 활용해 물류 문제 해소와 생활권의 증진을 위해 마련됐

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디지털 물류 기술(어플 등)을 활용한 마을전자 상거래 입점 농가와 금년 7월 준공 예정인 다송권역 중앙유통거점센터간 순회·수집 물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농가가 택배 상품을 위탁 예약하면 순회·수집 기사가 해당 시간에 맞춰 수거해 다송권역 중앙유통거점센터에 집하하고 집하된 상품은 택배사를 통해 전국 각지의 소비자에게 배송되게 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을전자상

거래의 물류 수요가 증가하는데 반해 택배서비스의 품질이 낮아 불편함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익산시 관내 당일배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익산시 시민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디지털 물류 서비스 혁신으로 물류비 절감, 농산물 판매증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관내 당일배송으로 익산시민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안전하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는 점, 순회·수집 기사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는 3월부터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골목 슈퍼마켓 가격경쟁력 높인다

군산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3월 공사 본격 착수

군산시는 3월부터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돼 경암동 504-2번지(화물차 임시공용주차장 부지)에 조성되는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창고 및 사무실 2개 동(연면적 4,978㎡)으로 구성되며 신선 제품 보관을 위한 저온 및 냉동 창고, 물품 판매대, 보관창고, 반품·선별장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지난해 시는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조정을 거쳐, 3월 실시할 계약 용역 발주, 12월 시공사 선정 등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 절차를 추진해왔다.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운영되면 소상공인은 구축된 통합 정보망을 활용해 판매제품을 공동 구매함으로써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석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업인 만큼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김현석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업인 만큼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주체인 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과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3월 준공에 맞춰 시설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 경영난 겪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육성하고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오택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경제관광국장, 소상공인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익산시의회 장정호 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익산센터 허동욱 센터장, 전북신용보증재단익산지점 김혜영 지점장, 미소금융전북익산법인 서류환 부부장, 익산시소상공인연합회 김양배 회장, 우석대학교 강희숙 교수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했다.

구성된 위원회는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관련

사업비, 소상공인 육성과 관련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손실보상, 특별보증 한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확대, 저소득 소상공인 이자 전액 지원,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기술력 · 가능성 높은 유망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군산시, 4월 7일까지 신청접수

군산시가 8일부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끌 2022년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을 신규 모집한다.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잠재력이 풍부한 유망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시는 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해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오는 4월 7일까지 신청 접수 후 1단계 서류 및 현장평가와 2단계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5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국내외 마케팅 등 맞춤형 패키지 사업비를 3년간 매년 3천만원 지원받게 된다.



군산시가 8일부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끌 2022년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을 신규 모집한다.

유망 강소기업 신청 자격은 ▲군산시에 본사(공장)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하고 ▲정당한 지 3년 이상 ▲상시 근로

자 10명 이상의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 재무제표 기준 최근 3년결산 매출액이 400억원 미만이면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 '익산형근로청년수당' 접수

익산시가 중소기업 근로 청년들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대상자를 모집한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지원과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지난해 최초로 익산형근로청년수당을 도입해 전국 유사 지원사업 중 가장 장기간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끈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익산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에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39세 이하 익산 청년으로 중소기업 같은 사업장에서(소상공인 사업장 포함) 1년 이상 근무하고, 평균 급여가 세전 270만원 미만, 주35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한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 또는 '청년센터 청춘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지원 사업 참여 이력, 급여,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 오는 4월 말에 500명 정도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자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인 '익산카드'로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홈페이지와 청년센터 청춘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한 후, 익산시청 대표전화(1577-0072), 청년센터 청춘(859-7358, 7384, 7382)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득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